

뜻뜻하기만 했던 고등학생 시절,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달콤한 첫사랑의 기억에 빠져드는 마법 같은 시간
유기농 스캔들 연극 [사춘기 메들리]

보도자료

D+M 웹툰 [사춘기메들리]원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담(7월)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달콤한 첫사랑의 기억에 빠져드는
마법같은 시간

유기농 스캔들 연극

사춘기 메들리

2013.11.1 ~ OPEN RUN
대학로 레몬아트홀

원작: 유인근 연출/감독: 박성준 공동제작: 유기농 스캔들 38.5 마켓: T play 공연문의: 1661-6981

후원: D+M, 스캔들, IVYclub

D+M 연극 사춘기메들리

110-812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85-7 101호 팀플레이

Tel : 1661-6981/Fax : 070-4369-4369/E-mail : timplay01@hanmail.net

자료문의 / 팀플레이 이문호 010-7400-9495

뜻뜻하기만 했던 고등학생 시절,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달콤한 첫사랑의 기억에 빠져드는 마법 같은 시간
유기농 스캔들 연극 [사춘기 메들리]

1. 공연 개요

- ◆ 공연 명 : 유기농 스캔들 연극 [사춘기 메들리]
- ◆ 일 정 : 2013년 11월 1일(금) ~ open run
- ◆ 공연시간 : 월~금 오후8시 / 토 오후3시,6시 /일 오후2시
- ◆ 관 램 료 : 30.000 원
- ◆ 공연장소 : 대학로 레몬아트홀
- ◆ 공연시간 : 90분
- ◆ 원 작 : 곽인근
- ◆ 각색 / 연출 : 박상준
- ◆ 출 연 : 김명식 김원식 신동아 김승민 유성민 송영진 조태규 김우현
조아라 전한주 김지울 서민우
- ◆ 제 작 : 창작집단 36.5 , 예술기획 팀플레이
- ◆ 기 획 : 예술기획 팀플레이 (공연문의 : 1661-6981)

뜻뜻하기만 했던 고등학생 시절,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달콤한 첫사랑의 기억에 빠져드는 마법 같은 시간
유기농 스캔들 연극 [사춘기 메들리]

2. 공연소개

검색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연재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웹툰 "사춘기메들리",

2013년7월 KBS2 TV 드라마 스페셜 4부작으로 제작되어 더욱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7월)좋은 프로그램 상"을 드라마 최초로 수상하였던 작품이다.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노래하는 "사춘기 메들리"가 연극으로 태어난다.

웹툰 원작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소극장 연극 무대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되어 또 다른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찾아와 따듯한 감동을 전해준다.

관객들이 직접 주인공 정우 아영에게 동화되어 가며 학생들의 공감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관객들도 옛추억을 저절로 회상하게 된다

진정성있게 마음을 울릴 첫사랑의 두근거림 연극 "사춘기 메들리"가 더욱 많은 관객에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라본다.

3. 시놉시스

전근이 잦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친구도 없이 전학을 다녀야 했던 정우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낯설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전학을 오게 된다.

학창시절의 즐거움도 모르고 친구들과 어색 하기만한 정우에게 말을 걸어온 반장 양아영. 정우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반장을 자신이 전학생이라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정우는 오해를 하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자신이 다시 전학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음날 반장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사귀자는 고백을 해버린다. 그리고 평소 자신의 짝 덕원을 괴롭히던 1진에게도 버럭 소리를 지르며 결투를 신청한다. 전학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즐거워 하며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전학을 취소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데....

앞으로 정우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게 될까?

뜻뜻하기만 했던 고등학생 시절,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달콤한 첫사랑의 기억에 빠져드는 마법 같은 시간
유기농 스캔들 연극 [사춘기 메들리]

4. 작가의 글

<사춘기 메들리는...>

갓 전학 온 소년, 최정우와 곧 전학 갈 소녀 양아영의 청춘 연애물입니다.
혹은, 사춘기 시절의 심적 스트레스를 걸어로 표출하는 소년과 속으로 참아내는 소녀의
청춘 연애물입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지쳐 조용한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했으며,
삶의 묵은 때를 씻어버리고자 순수한 캐릭터들을 만들었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에 정신이 없어 잔잔하고 느린 만화로 그렸습니다.

- 원작 웹툰 [사춘기 메들리] 후기 발췌. 작가 관인근

5. 관람포인트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연출의 힘이 느껴지는 공연

웹툰 마니아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 한 [사춘기 메들리].
유기농 스캔들 연극[사춘기 메들리]를 흔한 학원물이라고 단정짓지만 앓는다면 어렸을 적 추억과
그때의 감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어른들에게는 예전 뜻뜻했던 시절의 기억과 만날 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것이다.

흥미롭게 진행되는 줄거리뿐만 아니라 공연 곳곳에 다양한 세대의 추억을 톡톡 건드려주듯 연출
되는 [사춘기 메들리]는 단순히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주인공들만으로도 이 작품이 청소년들만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직장인, 더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검증 받은 원작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라인

요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응답하라] 시리즈에 비견될만한 콘텐츠로 공연을 본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연극 [사춘기 메들리]는 검증 받은 원작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라
인으로 웹툰이나 TV드라마로는 접할 수 없는 직접적이면서도 입체적인 표현방식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배우들의 숨소리와 땀냄새까지 같이 호흡 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마련해준다.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일반적인 학원물 이야기에서 일반 성인층의 관객들까지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탈바꿈 시킨 섬세하고 기술적인 연출장치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이루어
어지는 미완성의 이야기들은 관객들이 스스로 정우 아영이 되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도와준다

뜻뜻하기만 했던 고등학생 시절,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달콤한 첫사랑의 기억에 빠져드는 마법 같은 시간
유기농 스캔들 연극 [사춘기 메들리]

6. CAST



최정우(18)
남일고 2학년, 아버지의 작은 권금으로 인해 중,고교시절 통상 5회 전학을 다녔다. 남일고로 전학 온 지는 이제 갓 한 달이 되어 간다.



양아영(18)
남일고 3학년, 전교 1등, 반장. 남일군의 수재, 최정우와 같은 반.



임택원(18)
남일고 2학년, 학교 앞 만나본지 몇 아플. 최정우의 짝꿍, 학교 선배들에게 괴물집을 달라고 있다.



신영복(19)
남일고 3학년, 이혁호와 이원철의 부하. 주로 2학년인 임택원을 괴롭히는데 일삼는다.



이혁호(20)
남일고 3학년, 학교를 1년 쉬어 남들보다 1살 많다. 학교생, 남일고의 불곰이라 불리고 있다.



장원진(18)
남일고 2학년, 전교 2등으로 양아영을 경부한다. 조금은 까칠하지만 알고보면 귀여운 새김새기



김원식



김명식



조아라



전한주



유성민



김우현



송영진



김승민



신동아



조태규



서민우



김지율

7. 관람후기

90분 동안 혼신을 다해 연기하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설 새 없이 웃다가도 "아 -" 하며 가슴 한편에선 멍멍함이 밀려옵니다.

우리도 저랬었지

우리에게도 있었지

저런 설레임과 순수함이... -yas**

시골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 같고, 내 학창시절 이야기 같았습니
다

웹툰에서 느꼈던 그 감성, 그대로 느끼게 해주신 것에서 우선 최고의 연극입니다

학창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기분 좋은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어서 그런가 봐요

-yeena9**

중 1 딸아이와 함께본 이쁜 연극. 딸아이보다 내 심장소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사메와 함께 너
무나 행복했던 주말이었어요. -gongju**

첫사랑하면 생각나는 영화 건축학개론 옛추억에 미소지을 수 있는 응답하라~ 이 두작품속의 추
억에 열광한 사람이라면.. 대학로에선 사춘기메들리~♥ 추억과 감성에 젖어들게 하는 연극~! 거기
에 오글거림은 서비스~! -ccrki**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한 학창시절 기억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에 치여 바쁘단 핑계로 잊어버렸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극을 보며 웃고있는 저를 보며 참 오길 잘했다...그런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기억들을 꺼내 웃고싶은 분들...현재의 삭막한 자신에게 축축한 감성을 선물하고 싶은

분들...꼭 한번 보시기를.. 직접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funnily**